

# 좌현 수색 지지부진...악천후 겹쳐 속절없이 시간만 허비

### 수심 최대 48m...수압에 수중 작업시간 제한 다양한 방법 제기 불구 뾰족한 해결책 못찾아

#### 제기된 방법들과 문제점

- ① 90도 기운 선체 바로잡기.....선체 파손·실종자 유실 우려 보류
- ② 크레인으로 선수 들어올리기.....체인작업만 일주일 걸려 회의적
- ③ 연안으로 선체 견인.....장기 수색 못하고 고도 기술 필요
- ④ 소량의 폭약으로 정밀 폭파.....시신 훼손 우려에 가족들 반대

세월호 참사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수일째 지지부진하면서 합동수색팀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해안가로의 선체이동, 절단기와 소형 폭약을 이용하는 방법 등도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 아직 채택되거나 실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실종자 가족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이들 방법에 허점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세월호 수색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9일 민간 합동수색팀은 이날 5층 로비에서 시신 11구를 인양했으며, 전날 밤 선수 좌현에서 시신 1구를 수습했다.

그러나 실종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좌현은 여전히 수색이 제자리 걸음이다. 좌현은 현재 수심이 최대 48m나 돼서 수압으로 인한 수중 작업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90도로 누운 세월호의 자세를 바로잡아 수색을 쉽게 하자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 경우 좌현 지점까지 잠수 깊이가 줄어들고, 좌현 창문을 통한 객실 진입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선체 파손과 실종자 유실 우려가 제기돼 보류됐다.

이와 함께 크레인을 동원해 선수 부분을 들어올리는 방안도 제기됐다. 하지만 네티

란드와 영국의 인양·구난 전문가들은 배 앞 부분을 체인으로 묶는 작업에만 일주일 이상 걸리며, 그동안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 전체에 그물을 둘러 시신 유실을 막은 뒤 선체 뺏머리나 후미 쪽을 들어올리거나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얇은 연안까지 선체를 견인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장기 수색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수색팀은 좌현 객실문을 열기 위해 소량의 폭약을 문이나 벽에 설치한 뒤 방수가 되는 전기장치를 폭파시켜 해당 부분을 정밀하게 폭파하는 수중폭파 방식을 제안했으나 실종자 가족 대부분은 시신 훼손 및 유실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수중용접기로 벽 일부를 잘라내거나 와이어 절단기를 동원해 객실 문의 경첩을 제거해 통로를 만드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법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실종자 가족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선체 인양은 가족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수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에서 가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크레인을 동원해 선수 부분을 들어올리는 방안도 제기됐다. 하지만 네티



참사 첫날부터 우왕좌왕 했던 정부와 달리 민간 자원봉사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일사불란하게 실종자 가족들의 지원을 돕고 있다. 29일 팽목항에 설치된 수백개의 구조 천막 사이로 비친 실종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의 표정은 아직도 어둡기만 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자원봉사자들 있기에...편의시설 자비 마련 묵묵히 뒷바라지

### 팽목항의 24시

#### 전국 곳곳서 구호물품 담지 실종자 가족들과 아픔 나눠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르는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돈돼 있다. 한때 700명이 넘는 가족들이 머물렀던 때도,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14일째 접어들면서 희생자 가족들이 떠나 체육관에 빈 자리가 많아지는 29일에도 변함없이 있었다.

하루 24시간을 실종자 가족과 함께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챙기는 자원봉사자들 때문이다. 진도체육관 주변 온갖 편의시

설도 자원봉사자들이 자비로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실종자 가족들이 눈을 뜰 때부터 기도하며 울다가 잠이 들 때까지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팽목항 부두에서 일렬로 쭉 늘어서 매일 바다를 쳐다보며 가족을 기다리는 부모와 친구, 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동식 밥차’는 한국구세군, 행복약속봉사단 급식소, 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적십자봉사회 희망차 등에서 준비했다. 메뉴도 곱창·육계장, 잣죽, 누룽지, 햄버거 등 다양하다.

생때같은 자식 걱정에 경황 없이 달려온 가족들의 빨래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도와주고 있다.

팽목항에도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빨래차 4대를 끌고와 담요, 옷가지 세

탁을 맡고 있다. 한시도 체육관을 비울 수 없는 가족을 위해 자원 봉사자들이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천막을 돌려 수거해오면 세탁한 뒤 가져다준다.

에타게 기다리던 소식을 챙기려는 실종자 가족을 위해 이동통신사는 와이파이가,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자원봉사자들은 2개조로 나눠 24시간 충전 서비스 공간을 떠나지 않는다.

원광대 한방치료팀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체육관 바닥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가족들의 건강과 지친 심신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한 조치로 한방·물리 치료를 해주고 있다.

진도 농협을 비롯,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홈플러스, 원불교공공회, 진도교회연합, 천주교 광주대교구 등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

한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국민이 보낸 구호품도 방수용 외투부터 상·하의, 양말, 비상약, 치약, 칫솔, 화장지, 라면, 심지어 여성용 속옷까지 다양하다. 팽목항에만 하루 평균 1t 트럭 3대 분량이 들어온다. 서울대 의대 정신과에서는 가족들의 안정을 도와주고 있다.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도 자원봉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임준표 수습기자 lotus@kwangju.co.kr

#### ‘거짓 인터뷰’ 여성 구속 송치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종합편성 채널 뉴스에 출연해 허위 내용을 인터뷰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홍모(여·26)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잠수부와 통화가 되거나 갑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원과 대화를 나눈 생존자도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경찰은 홍씨가 방송 인터뷰 직전에도 자신의 SNS에 허위 내용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혐의도 추가.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정부, 피해자 장례·치료비도 국비 지원

### 안행부 세부 지원 기준 마련

안전행정부부는 세월호 참사 후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데 이어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치료비도 국비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비 승인을 위한 국무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 지원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증을 통해 우선 지출하고 사후 국비 정산할 예정이다. 희생자 장례비는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비비를 활용해 처리하고 있다.

부상자 중 중상자의 치료비는 해운조합이 든 여객 보험으로 해결하고 승선자 외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우선 내고 국비 정산토록 하고 있다. /연남스

## 여수해경 여객선 21척 점검...5척 운항중지 권고

### 안전 문제 100여건 적발

여수해경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관내 여객선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에 문제점을 드러낸 여객선 5척에 수리할 때까지 운항중지를 권고했다.

2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한국선급(KRS),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여수지방해양항공청 등과 함께 관내 운항 중인 여객선 21척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

시설 전반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수리 후에 운항하도록 하는 ‘운항중지’ 사항이 5개 여객선에서 모두 100여건이나 적발됐다.

제5연성페리(백야-직도)가 외관 부식 등 15건을 지적당한 것을 비롯해 한려페리호(여수-함구미)는 화재알람 불량 등 19건, 금호페리3호(신기-여천)는 비상조타실 기관 파손 등 28건, 고군산호(백야-문병)는 연료 유 차단밸브 작동 위치 변경 등 13건, 거북

선호(돌산대교-사도)는 구명복의 보관 위치 변경 등 16건이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 여객선 5척에 대해 수리 후 운항하도록 권고했으며, 선사 측에서는 대체선을 운항하거나 자체 보완할 때까지 휴항 신고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나왔다.

또 운항 중지는 아니지만 지적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시정하고 재확인 받도록 한 사례도 10개 여객선에서 150여건에 달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고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고송 선거차량 UCC로고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공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홍암지점 | 653-4474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 등재서비스**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